

보도시점 : 2023. 12. 26.(화) 11:00 이후(12. 27.(수) 조간) / 배포 : 2023. 12. 26.(화)

[2023년 국토교통부 정책 돋보기]

## 2023 토끼처럼 뛰어오른 K-UAM, 2024 용의 비상 준비한다

- 「도심항공교통법」 제정·과감한 규제특례 기반 K-UAM 상용화 카운트 다운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올 한해를 국정과제인 ‘도심항공교통(UAM) 2025년 상용화’ 달성을 위한 기반이 다져진 한 해였다고 밝혔다.
  - 특히, '23년은 K-UAM 그랜드챌린지 실증(K-GC) 착수, 제도적 기반 마련, 산학연관 협의체 내실화와 예타급 연구개발(R&D) 확정 등 다양한 성과에 기반한 평가라고 덧붙였다.
- 먼저,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UAM 실현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실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, 미국·프랑스·영국의 실증사업과 함께 세계 4대 UAM 실증사업으로도 불리는 K-GC를 착수('23.8)했다.
  - 기체·운항·버티포트·교통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우수기업들의 참여(1단계 협약 기준 46개 기업)하여 개활지(전남 고흥 실증단지)에서 실증하고 있으며, 내년부터는 수도권 하늘에서 실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.
- 다음으로,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고 초기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나가는 「도심항공교통법」도 제정('23.10)됐다.
  - ‘선(先) 실증-후(後) 제도화’를 기치로 제정되어 복잡하게 얽매인 기존 항공법령에 구애받지 않고, 규제특례를 과감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.
- 아울러, 100여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UAM 팀코리아도 상용화 분야별로 집중 논의하는 5개 분과 및 14개 워킹그룹 체계를 신설('23.5)하였는데, 상용화를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.
  - 한편, 최초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에 활용될 기술을 개발하는 예타급 R&D('24~'26, 1,007억)도 확정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 나갈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2023년은 K-UAM 상용화 기틀을 마련하고 '25 UAM 상용화를 향해 토끼처럼 뛰어오른 도약의 한 해”라며,
- “2024년은 상용화 기틀에 GC실증결과와 제도 완비 등 내용을 채워 나가며, 용의 비상을 시작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”며 의지를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승욱 (044-201-4197)
		담당자 <총괄 및 도심항공 교통법>	서기관	서정석 (044-201-4302)
			주무관	신한나 (044-201-4280)
			전문위원	장유림 (044-201-4275)
		담당자 <K-GC, R&D>	사무관	조재익 (044-201-4199)
			주무관	양상혁 (044-201-4266)



## 참고 1

# K-UAM그랜드챌린지(K-GC) 개요 및 계획

- ① (인프라 구축<sup>'21~'22</sup>) 개활지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·격납고 건축, 시험장비 설계·구축 및 인프라 운용시험\*

\* UAM 모사항공기(Surrogated Aircraft, 예: 헬리콥터)를 이용한 인프라 운용확인 시험

- ② (1단계 실증<sup>'23.8~'24.12</sup>) 비행시험장(개활지, 고흥)에서 사전시험\*을 통한 UAM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, 통합운용 실증 수행

\* 특정 UAM 항공기(또는 UAS 기체)를 이용한 실증 프로그램 운용 사전확인 시험

- ③ (2단계 실증<sup>'24.8~'25.6</sup>) 준도심 · 도심을 연결하는 실증회랑에서 수행

### 【 단계적 실증계획 】



#### ▲ 주요 실증범위

- ① 버티포트 운영 및 UAM 교통관리 서비스의 H/W, S/W 안전성 통합점검
- ② 통신, 항법, 감시, 정보 공유·교환을 통한 이해관계자간 역할
- ③ 악천후, 기기고장 등 상황별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

- ④ (상용화착수 지원<sup>'25</sup>) K-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데이터 분석, 관련기술 및 인프라 민간제공을 통한 상용화 착수 지원

- ⑤ (R&D 연계<sup>'22~'25</sup>) 실증시험 중 항공기 위치확인 등 안전성 검토 및 초기 상용화 인프라 지원을 위한 R&D과제\*와 연계하여 진행

\* 초기 UAM 교통관리 서비스 및 항로이탈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획득/활용체계, UAM 객체별 운용능력 및 절차 확보를 위한 가상 통합운용 등 2개 신규과제('22~)

## 참고 2

## 도심항공교통법 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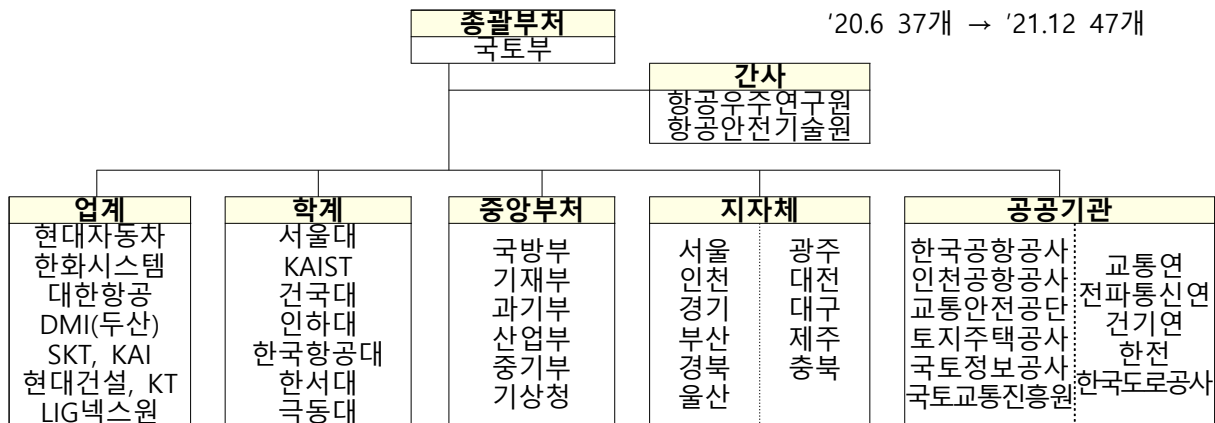
- (목적) 도심항공교통의 도입·확산과 안전·효율적인 항행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 이동권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이바지(제1조)
- (정의) 도심항공교통, 도심형항공기, 버티포트, 회랑, 실증·시범사업 구역 등 구성요소 개념정립·정의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세분화(제2조)
  - \* ①운송사업, ②교통관리사업, ③버티포트운영·관리사업, ④수색·구조·의료·비행훈련 등 사용사업
- (실증사업·시범운용) 연구개발·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증사업구역 <sup>국토부장관</sup>지정(제6조) 및 실증사업자 지정·지원(제7조)
  -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·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용구역 <sup>국토부장관</sup>지정(제8조) 및 정기·수시 평가(제20조)
  - ⇒ (규제특례) 실증·시범운용 구역에서는 일부사항\*을 제외하고는 항공 4법(항공안전·보안·사업법, 공항시설법) 적용 배제(제15조, 제16조)
    - \* 등록, 형식증명·감항증명, 항공안전 보고 등 →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가능
- (버티포트) 국토부장관 직접 개발 가능, 이외의 자 시행 시 개발사업 <sup>국토부장관</sup>허가 및 시행계획 <sup>국토부장관</sup>인가(제9조, 제10조), 연관 법률 인허가 의제(제11조) 및 <sup>국토부장관</sup>지정(제12조)
- (회랑)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도심항공교통회랑 <sup>국토부장관</sup>지정 근거 규정(제13조)
- (도심항공교통사업자)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<sup>국토부장관</sup>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4조)
- (시스템 구축) 도심형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, 공간정보 구축 근거 마련(제17조, 제18조)
- (보험가입)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 부여(제21조)
- (계획·지원시책) 5개년 기본계획(제4조), 행정적·재정적 지원·전문인력 양성·국제협력 <sup>국토부장관, 시·도지사</sup>지원 근거 마련(제22조~제25조)
- (보칙) 처분 시 청문(제26조), 업무 시 보고·출입검사(제27조), 권한 위임·위탁(제28조), 벌칙(제30조), 과태료(제31조) 등
- (부칙) 공포 6개월 후 시행, 실증사업 참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

### 참고 3

## 상용화 준비 UAM팀코리아 체계 개편

- (목적) K-UAM로드맵의 공동 이행, 신규과제의 발굴 및 주요시장·기술 동향 등을 논의하는 산학연관 정책공동체로 출범
- (구성) 국토부 2차관 위원장, 주요사항을 함께 논의·의결하는 47개 참여기관과, 기술·정책동향만 공유받는 초청기관(60여곳) 등으로 분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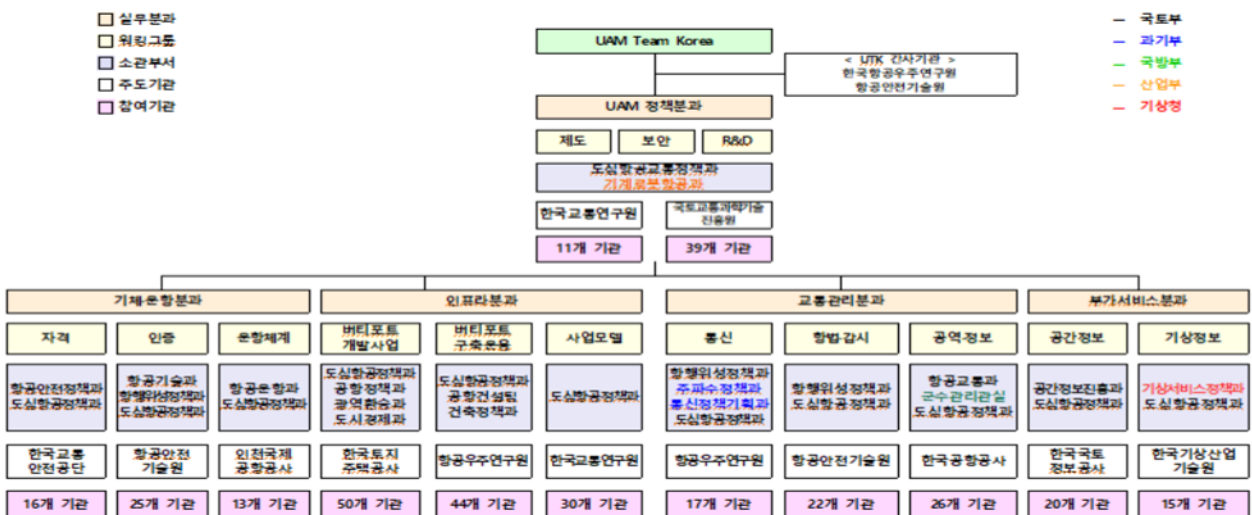
**[UAM Team Korea 참여기관 및 구성도]**



※ (초청기관) 카카오모빌리티, 보잉 코리아, 다쏘시스템, 한컴위드, 파이버프로, 퍼스텍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항공우주산학융합원, 무역협회, 산업은행, 강원, 경남, 전남, 충남, 세종, 행복청, 해양수산부, LG유플러스, UNIST, 경상대 등

- (운영) 본 협의체(47개 기관)는 의사결정 등 위원장 주재·개최(연 1~2회)
  - 신속·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(과장급 주재)와 함께, 전문·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산하 5개 실무분과(14개 워킹그룹<sup>WG</sup>)\*도 구축·운영 중

**[5개 실무분과 및 14개 워킹그룹(WG) 구성도]**



## 참고 4

## 에타급 핵심기술 R&D 확정

### □ 사업개요 ※現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프로젝트

- (사업기간) 2024년~2026년(총 3년)
- (사업비) 총 1,007억원(국고: 803억원, 민간: 204억원)
- (사업목적) 본격 성장기 목표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신뢰성이 검증된 핵심기술 개발로 UAM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
  - \* 「항행.교통관리시스템」+「버티포트 운용.지원시스템」→「한국형 인증체계(형식증명 등)」 개발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추진
- (추진부처) 주관(국토부, 총 842억원) / 참여(기상청, 총 165억원)

### □ 사업 내용

- (사업 구조) 실시간 운항정보 기반 도심항공교통 운용에 필요한 공역.교통관리/인프라 운용지원시스템, 인증체계 등의 핵심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상세설계 기술로 총 3개 전략분야, 7개의 연구과제로 구성
  - \* 국토부(UAM용 교통관리.인프라 및 인증체계 등), 기상청(저고도 도심 기상 관측.예측)

